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만...맞춤형 전기식이 뜬다

비타믹스, 맞춤 영양제 브랜드 운영
한국술가, 맞춤설계 서비스 도입
정부, 전기식 소분 판매 허용 계획

“하루 채소는 몇 접시 드세요?”
“평소 햇볕을 쬐는 야외활동은 얼마나 하나요?”

얼핏 병원이나 다이어트 전문 시설의 건강상담같은 질문들, 사실은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건강기능식품’을 위한 첫 단계다.

사회가 개인화를 넘어 초개인화로 들어서면서 건강기능식품(이하 전기식)도 그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내게 맞는 전기식을 ‘고르는’ 것을 넘어 몸 상태와 필요한 영양소를 나에 맞게 딱 맞추는 ‘비스포크 전기식’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비타믹스, ‘건강영양평가’ 통해 맞춤 제조

비스포크(Bespoke)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전에는 옷이나 구두 등에서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냉장고 같은 가전 분야까지 등장했다.

비스포크 전기식 역시 소비자 요구와 필요에 따라 각종 영양성분을 맞춤 제조하는 것이다. 개인마다 필요한 영양소는 식생활 같은 생활습관과 환경적, 유전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다. 비스포크 전기식은 전문가 상담과 평가를 통해 마치 옷이나 구두를 맞추는 것처럼 내게 맞는 영양소와 성분을 파악한다.

전문가와 한 번 상담하면 이후 같은 제품을 간편하게 온라인 등으로 정기구 매할 수도 있어 ‘구독경제’ 서비스를 전기식에서 운용할 수 있다. 시장의 확장성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도 크다 보니



비타믹스의 비스포크 전기식 ‘뉴트리미 마이팩’(왼쪽)과 최근 오픈한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한국술가 브랜드관.



사진제공 | 비타믹스·한국술가

비스포크 시장을 노린 건강 스타트업들이 활발하다.

‘뉴트리미’라는 맞춤형 영양제 브랜드를 운영하는 비타믹스는 비스포크 전기식 시장에서 요즘 주목받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다. ‘오직 나를 위한 영양’이라는 콘셉트가 말해주듯 비스포크 전기식에 특화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비타믹스의 비스포크 전기식 ‘뉴트리미 마이팩’을 이용하려면 ‘건강영양평가’를 거쳐야 한다. 식습관과 음주, 흡연, 햇빛노출과 같은 건강행태, 건강 관심 등을 문진 형식으로 파악한다. 질문이 꽤 구체적이어서 채소는 하루 몇 접시를 먹는지, 생선이나 유제품 섭취량은 어느 수준인지, 물 섭취량, 운동량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절제할 필요한 야식습취나 외식 빈도 등도 물어본다. 문항은 대략 식생활이 20여 개, 건강행태와 관심영역 13~19개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특성이 파악되면 종합영양관리 가이드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영양제들을 조합해 본인 이름을 새겨

정기적으로 배송한다. 비타믹스는 최근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을 꺼리는 경우에 맞춰 화상이나 온라인 문진도 운영하고 있다. 만약 오프라인 대면상담을 원하면 심층상담을 통해 식생활과 식단 교육까지 제공한다.

영양학 박사로 건강영양평가 문항을 직접 설계한 박주연 비타믹스 대표는 “지금은 문진 중심이지만 앞으로 유전자검사,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생화학검사 등도 포함하고 이를 활용해 비스포크 전기식을 개발하는 AI 디버닝과 신원료 발굴 인정으로 영역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술가, 브랜드관에 상주 상담사

비타믹스같은 스타트업 외에 기존 업체들도 맞춤형 서비스를 오프라인 매장 등에 적용하고 있다. 비타민 전문기업인 한국술가의 경우 최근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에 오픈한 브랜드관에 맞춤 설계 서비스를 도입했다. ‘프리미엄 경험’이라는 콘셉트로 매장 상주 전문상담사가 영양제 맞춤 설계와 알약 크기, 구성

등 제품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도 비스포크 전기식 같은 개인 맞춤형 제품이 오남용을 막고 올바른 사용을 돕는 방법이라고 평가해 소분 판매 금지 같은 규제 철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전기식 소분 판매 규제 샌드박스로 풀무원건강생활, 코스맥스엔비티, 모노랩스, 한국암웨이 등 17개 업체 172개 매장을 승인했으며 현재 서울과 경기의 대형마트와 약국 등 17개 매장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별 문제가 없다면 올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분 판매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박주연 비타믹스 대표는 “현재 해외 지구 형태로 국내에 들어오는 개인맞춤형 영양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맞춤형 시장 허용은 필요하다”며 “산업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의적절하게 샌드박스 사업을 운영해 앞으로 소분법 마련과 온라인 판매도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서울아산병원, 자궁동맥색전술 10년간 성공률 95%

서울아산병원은 산부인과 산후출혈대응팀이 전치태반 고위험 산모에게 시행한 자궁동맥색전술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95%의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치태반은 태반이 자궁 입구 가까이 있어 태아가 나오는 길목을 덮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분만 전후 많은 양의 출혈로 호흡곤란이나 쇼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산모와 태아를 위협하는 질환이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는 총 2만 6914명인데 이중 약 5%(1312명)가 전치태반 산모였다. 전치태반 산모 중 출산 후 출혈이 지속돼 자궁동맥색전술을 받은 경우는 108명이었고 이중 자궁동맥색전술 이후 자궁을 적출한 6명을

제외한 94.4%의 치료가 성공했다. 출혈로 인한 사망은 없었다.

현재 산후출혈대응팀은 산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수술실에서 제왕절개와 자궁동맥색전술을 함께 시행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산부인과 의뢰진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하며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의뢰진과의 협진을 한다.

산후출혈대응팀인 정진훈 산부인과 교수는 “앞으로 타 병원에서 분만 후 과다 출혈로 위험에 처한 산모가 발생하면 우리 산후출혈대응팀과 바로 연락을 취해 즉각적으로 자궁동맥색전술이 이뤄지도록 핫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2011년부터 전치태반 고위험 산모 치료
“타 병원과 산후출혈대응팀 핫라인 구축”



이미징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왼쪽 세번째)가 자궁동맥색전술을 받은 전치태반 산모에게 분만 후 처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서울아산병원

“재미있는 소비가 좋아”

광동제약, 골프·피자 브랜드와 이색 협업

광동제약이 다른 업종 브랜드와의 색다른 협업(컬래버레이션)으로 MZ세대 공략에 나섰다.

올해로 발매 10주년을 맞은 광동햇개자는 골프웨어 브랜드 골든베어와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했다. 골든베어 캐릭터가 광동햇개자를 든 이미지를 넣은 셔츠와 캡 등의 골프웨어와 볼마커 등 4종(사진)의 협업 상품으로 소비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젊은 ‘편슈머’ 취향을 겨냥했다. 13일부터 패션 플랫폼 무신사를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17일에는 방송인 하하가 진행하는 쇼퍼라이브 예능채널 베투맨에서도 선보였다.

진도산 흑미를 원료로 올 초 출시한 광동흑미차는 피자 알볼로와 손을 잡았다. 피자 알볼로는 연간 80여 톤의 진도산 흑미를 도우에 사용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피자 알볼로와 함께 ‘흑미에 진심’이라는 콘셉트로 공동 행사를 기획했다. 피자 주문 고객에게 광동흑미차를 제공해 재미와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재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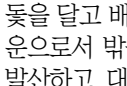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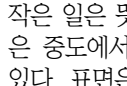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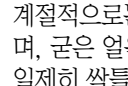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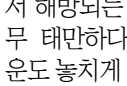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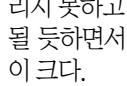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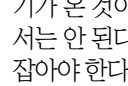
중앙대병원, 호흡알레르기내과 확장 이전 운영

중앙대병원은 13일 호흡기알레르기내과를 다정관 1층에 확장해 오픈했다. 중앙대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추후 반복될 감염질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외래를 완전히 분리하는 공사를 이달 완료했다. 이번에 개소한 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외래진료실 3개, 폐기능검사실, 알레르기검사실, 결핵관리실, 수납 등을 한 공간에 배치해 환자들이 진료와 검사를 받기에 용이해졌다. 또한 대기공간을 포함한 전 구역에 음압 설비를 갖췄다.

한창수 고대 의대 교수, 무기력극복 행동지침서 출간

한창수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가 무기력의 원인과 행동 지침을 담은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을 20일 발간한다. 한 교수는 책에서 내담자의 진단 결과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기력의 원인을 몸, 정신, 감정 등으로 세분화해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또한 몸에서 ‘무기력’이란 원치 않는 손님을 정중하게 돌려보내고 평생 거리두기하는 법을 제시한다. 한창수 교수는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대학원과 미국 듀크대에서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19일(목) 음력: 7월 1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뚝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에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중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은 진실성이 없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이다. 뚝 듯 뚝 듯하면서 되지 않는다. 실망이 크다.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에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계절적으로는 춘분에 해당하며, 굳은 얼음이 풀리고 만물이 일제히 싹을 틔운다. 그리고 지금까지 괴롭고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출발의 시기가 온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자빨리 호기를 붙잡아야 한다.			
오늘의 행상은 저녁놀이 산전 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몰락 직전의 찬란한 빛을 암시한다. 물결이 급전적으로 충분히 못한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하라.				오늘의 행상은 저녁놀이 산전 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몰락 직전의 찬란한 빛을 암시한다. 물결이 급전적으로 충분히 못한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하라.			
오늘의 기운은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고 인간으로는 장년기, 사업으로는 전성기를 나타낸다. 물론 뻗어가는 기운이지만 그만큼 책임은 무겁고 긴장이 끊이지 않는다. 사물은 성하면 쇠하는 법. 지나친 언동은 삼가고 항상 신중하라.				오늘의 기운은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고 인간으로는 장년기, 사업으로는 전성기를 나타낸다. 물론 뻗어가는 기운이지만 그만큼 책임은 무겁고 긴장이 끊이지 않는다. 사물은 성하면 쇠하는 법. 지나친 언동은 삼가고 항상 신중하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은 진실성이 없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이다. 거러상대가 이쪽을 의심하게 되니 잘 설득시킴이 중요하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고 감응하는 운기이다. 이성을 만나면 길한 날이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애정 운이 최고인 날이다.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비천함에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것이다. 매사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며, 지금은 재능을 감춰두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물이 차지 않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다. 협력해 주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고,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두 곳의 사업장이면 한 곳으로 합치면 좋겠다.			
하늘과 땅의 조화가 되지 않는 날이다. 벽한 일로 고역을 치른다. 그렇다고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격류를 건다 내려면 굳센 용맹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에는 중요한 문제에만 치중하여 일의 부담을 덜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옛날 나라에서 제왕을 올려야 했던 날이다. 즉, 현재의 번영이 하늘이나 조상의 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이다. 사업인에게는 이익이, 직장인에게는 승진이 있는 날이다.			

오늘의 날씨				19일(목)	
서울	10/20	인천	10/20	춘천	20/30
	21 31		22 30		19 29
강릉	80/80	대전	30/60	전주	30/60
	21 26		21 30		21 30
광주	30/60	대구	30/60	부산	60/30
	21 29		21 29		22 28
창원	30/60	제주	6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2 29		23 28	날씨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4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성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